

石油事業基金의 용도제한이 풀리면서 정부 각부처가 앞다투어 이 기금을 자기네가 쓰겠다고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두차례에 걸쳐 국내油價인하를 단행했던 정부는 최근에 들어 정확하게 얼마가 견딜지도 모르는 石油事業基金을 놓고 정부 각 부처가 저마다 끝어다 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기금이 연말까지 1조1천억원에 이를 것이며, 이 돈으로 기술개발지원, 산업구조조정은 물론, 주택건설 지원, 해외건설 지원, 통화안정증권 발행, 공업발전기금 조성, 일부外債 상환등 다양하게 써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기금에 대해 저마다 군침을 삼키고 있는 것은 최근의 石油事業法 시행령 개정으로 石油事業基金을 사실상 종합경제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석유사업법과 그 시행령은 석유사업기금의 용도를 석유비축과 석유개발사업·품질관리 및 기타에너지자원개발사업에 쓰도록 국한되어 있었다. 기금

石油事業基金의 대폭인상과 精油業界의 자금난

이름에 걸맞은 사업들에만 쓸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시행령개정으로 기금용도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개정령은 17조에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 기금에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市中 및 국책은행에의 예입, ▲ 국공채·통화안정증권·은행발행채권의 매입 ▲ 재정 자금에의 예탁 등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했다. 개정령은 또한 지금까지 비축·개발·안정기금으로 분리·운용해 오던 石油事業基金을 용도구분없이 통합 운용토록 했다.

石油事業基金의 法的 운용근거가 마련된 것은 1977년말의 2차 석유사업법 개정 때이며, 그후 석유사업기금제도는 국내외 석유정세의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되어 왔다. 73년의 제1차 석유위기 이후 국제석유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77년초 사우디 아라비아가 아라비안라이트原油를 배럴당 12달러9센트로 결정한데 대해 쿠웨이트는 自國產 원유를 배럴당 12달러37센트로 높게 책정함에 따라 국제석유시장은 가격 二元化현상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77년말까지 지속되었다.

이와같은 原油가격 二元化 현상으로 사우디원유를 사용하는 精油社와 쿠웨이트 원유를 사용하는 精油社간에 상당한 손익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油價안정과 정유사간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이러한 원유가격 차이에 의해 싼 값으로 원유를 도입하는 精油社에 과다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基金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石油事業法에 석유사업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석유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석유비축이 절실함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기금

金 乾 洽
(대한석유협회 홍보실장)

石油事業基金의 변동추이

(單位: \$ / 배럴, LPG = \$ / 톤)

	原 油			輸入B-C油			輸入LPG		
	安 定	備 蓄	開 發	安 定	備 蓄	開 發	安 定	備 蓄	開 發
1979. 7. 10	差額(實導 入價格-基 準原油價)	FOB×3.3%	-						
1980. 8. 24	(上同)+ 1.0(定額)	1.0(定額)	-						
11. 29	(“)+1.5	1.0	-						
1981. 4. 19	3.5	1.0	-						
11. 29	2.3	1.5	-						
1982. 3. 11	0.7	1.5	-	-	-	-	-	-	-
1983. 2. 6	0.15	1.1	-	3.5	1.5	-	100	100	-
4. 19	2.09	1.1	-	2.9	1.1	-	100	86	-
6. 15	2.09	1.0	0.1	2.9	1.1	-	100		54
10. 1	2.09	0.7	0.1	2.9	1.1	-	100		69
11. 25	2.09	0.7	0.1	0.1	0.1	0.1	100		88
12. 1	0.7	0.7	0.1	0.1	0.1	0.1	100		88
1984. 11. 22	0.6	0.55	0.1	0.1	0.1	0.1	100		160
1985. 4. 1	0.15	0.25	0.1	0.1	0.1	0.1	100		160
5. 11							100		115
11. 1							(154)
1986. 1. 9		(0.5)		(0.3)	(50)
4. 1	1.57	0.25	0.10						
5. 31		(9.04)		(9.04)	(119)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석유개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石油事業基金의 설치목적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석유정책의 기본목표인 「石油의 안정·低價공급」에 있으며, 이러한 정신은 지금까지의 석유사업법의 운용과정에서 반영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의 석유사업기금의 용도제한을 해제한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은 이 기금운용의 중대한 방향전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사용된 石油事業基金의 내역을 보면, 안정기금의 경우, 대부분은 제2차 석유위기 기간중 油價안정을 위하여 低價도입 精油社로부터 유류소비자의 부담과는 무관하게 징수하여 高價原油도입 精油社의 손실보전등에 사용되었다. 또한 원유의 안정확보를 위하여 中東지역으로 편중된 原油導入先을 수송소요시간이 긴 여타지역으로 다

변화 했을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추가수송비등 불이익에 대한 지원, 소비자보호를 위한 품질관리사업에 사용되었다. 지난 83년 3월 국제원유가격 하락 때 油價인하 재원중 유보분으로 조성된 원충재원을 에너지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자에 사용되었다.

비축기금은 86년까지 국내 석유소비량의 60日분에 해당하는 정부비축을 목표로 비축기지 건설과 비축유 구입 등에 사용되었으며, 여유자금은 85년 이후 대규모기지 완공에 따른 비축유의 다량구입을 위한 소요자금으로 적립해 왔다. 개발기금은 83년 6월에 신설·조성하기 시작하여 84년부터 이 사업용자에 사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금의 운용이 석유정책의 수행과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한 바 있으나, 그동안의 기

금제도는 몇가지 과제를 시사해 주고 있다.

우선, 지난 83년 국제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완충재원의 활용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기금은 電源개발사업, 수자원개발사업, 석탄산업등에 사용되어 정유사업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현재 精油社 자체의 내부축적자본에 의한 시설투자재원조달이 기금의 他용도전용을 가급적 축소하고, 정유산업의 시설투자에 우선 지원함이 바람직하다.

또 석유관련 정부 부문비용의 경감과제이다. 국내 유류가격 중 제세공과금의 부담은 석유사업기금을 포함하여 소비자가격의 20% 수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의 석유사업기금의 대폭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5월31일 석유사업기금 정수액을 배럴당 1달러92센트에서 9달러 4센트로 대폭 인상했다. 현재 원유도입가격은 배럴당 13달러 8센트인데, 관세 및 기금으로 11달러 17센트를 정부가 떼어가고 국내유가는 내리지 않아 소비자들은 그만큼 더 부담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석유사업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소비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문제는 기금의 대폭 인상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기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精油社들의 자금사정이다. 최근 국내油價가 두차례에 걸쳐 22.25% (공장도가격 기준) 인하됨에 따라 정유업체는 매출 대전의 현금유입액이 종전대비 22.25% 감소된 반면, 앞으로 상당기간 결제해야 할 원유도입 외상대전은 대부분 국제원유가격 인하전의 高價원유이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31일부터 석유사업기금이 종전의 배럴당 1달러92센트에서 9달러 4센트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精油社들은 6월 1달동안에만도 1천 3백억원의 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精油社의 자금압박현상은 원유를 정제한 뒤 팔아 돈을 회수하기도 전에 통관시점에서 미리 내야 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이다.

정유업체는 최근 두차례의 국내유가인하와 석유사업기금 및 관세의 대폭인상으로 인해 연말까지 약 5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정유업체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6월 한 달동안 기금을 정수해가면서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

기금납부시기를 현행 원유통관일로부터 90일 정도 늦추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기금납부시기를 3개월 늦추어 준다 해도 정유업체의 자금부족분 5천억원 가운데 3천억원정도 밖에 해소되지 못한다. 업체는 이와 같은 자금부족을 자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요자금조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행 국내 與信규모의 한계성과 경직적 운용등으로 금융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정유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저렴한 石油에너지의 안정공급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계속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최악의 경우 精油社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도산하고 가동이 중지된다면 이는 정유업체의 사활문제를 떠나 에너지수급과 경제전반에 관련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大局의이고 현명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基金收支現況 (1979~1983)

(單位: 億 圓)

	造成額	使用額 ¹⁾	殘 高
○備蓄基金 (政府備蓄)	6,971	4,678	2,293
- 施設費		1,540	
- 備蓄油購入費		3,105	
- 管理維持費等		33	
○安定基金 (既存)	8,679	8,729	-50
- 基準價差額等		8,494	
- 導入先多邊化支援		238	
- 品質檢査所設立利用		7	
○安定基金 (緩衝財源)	1,628	1,910	-282
- 에너지利用合理化		238	
- 夏季貯炭資金		252	
- 電源開發事業		1,000	
- 水資源開發事業		420	
○開發基金	84	-	84

註: 1) 使用額은 83년말 用度發生 기준

2) 高價差額補填 및 低價原油도입 장려
(資料) 動力資源部